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3/27/2022

22-14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자) 사순 제4주일  
(Vi) 4th Sunday of Lent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Your brother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 again.”

루카 15,32 / Lk 15:32



###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 미사시간 Mass Schedule

####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 사무실 업무 시간

#### Office Hours

일/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월/수/토 휴무 M/W/Sat Closed

(Until 11/30 Temporary Schedule)

###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굳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울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 교황님 기도 지향

### (Pope's Intention)

### 3월 / March

####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도록 기도합니다.

#### For a Christian response to bioethical challenges

We pray for Christians facing new bioethical challenges; may they continue to defend the dignity of all human life with prayer and action.



사순 제4주일 (다해) / 4th Sunday of Lent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Rejoice, Jerusalem, and all who love her. Be joyful all who were in mourning; exult and be satisfied at her consoling breast.

**【제1독서/First Reading】** ..... 여호 5,9-11.10-12 / Jos 5:9a, 10-12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제2독서 / Second Reading】** ..... 2코린 5,17-21 / 2 Cor 5:17-21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Glory to you, Word of God, Lord Jesus Christ.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I will get up and go to my Father and sha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

**【복음 / Gospel】** † ..... 루카 15,1-3.11-32 / Lk 15:1-3, 11-32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You must rejoice, my son, for your brother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 he was lost and is found.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3/27 10am	3/27 3pm	3/29 7:30pm	3/30 10am	3/31 10am	4/1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율리안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불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채말기 모니카, 변정창 마리아, 신바오로, 김아네스, 이의관, 윤영섭, 김범주	Charles Angel Julie Fennel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윤요한 박야고보 도요한 김베로니카
생미사(L)	홍마리고레띠,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레자 요한, 김다니엘,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조앤, 박우슬라 가정, 김소피아, 유재숙 카타리나, 박마리아, 이디모테오&카타리나, 현마리안나 가정, 김수진테레사, 홍요안나&미카엘, 임미숙 로사 성발바라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여기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Let us all pray for the intentions.



## 돌아온 탕자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이 자라며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향(歸鄉return to one's home tow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헤아려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야망을 품거나 자신의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살던 곳을 벗어나 더 큰 도시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자신을 이루는 가치와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약함과 더 나아가 실패까지도 받아들임을 전제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임입니다.

오늘 루가 복음15장에서 둘째아들의 모습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서는 회심(回心-a change of heart)입니다. 회심이라는 말 속에는 자신을 받아들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좌절과 실패의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심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회피와 변명, 자기방어의 모습을 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마음을 하느님께 돌립니다. 이유는 역설적으로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탕자의 비유(루가15장)를 통하여 루가 복음 사가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께 돌아서라는 것과 하느님 아버지는 모성을 지닌 자비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둘째 아들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을 모두 탕진하고 곤궁해진 자신을 이끌고 허덕이는 모습은 마치, 신앙을 읽고 하루하루를 절제 되지 않은 욕구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감각적이며, 즉흥적이고, 경쟁적이기에 많은 불행을 느낍니다. 반대로 신앙을 가졌을 때 즉,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의 우리들은 평화로우며 부족할지라도 만족 할 줄 알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 갑니다.

마치 '김소운(1907-1981)'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중에 한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가난한 집안 살림에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아침상을 차렸지만 궁핍한 생활에 찬을 준비하지 못한 남편이 간장 한 종지를 차려놓고 미안한 맘에 쓴 글귀 '왕후의 밥, 걸인의 찬.' 그 쪽지를 본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왕후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마음만은 넉넉해짐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은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 일수도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전통을 지키며 집을 지키며 살았지만, 실제로는 질투와 분노, 과민하고 완고한 태도, 그리고 웅졸하며 무엇보다 교묘한 독선을 간직한 채 살아온, 삶 속에 고스란히 존재했던 큰 아들의 모습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수도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하느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속에서 우리들은 쉽게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 말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가서라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선 바오로 신부

## Bible Trivia 1001

50. Whose prayer resulted in his being thrown into a den lions?
51. What was the apparent source of Samson's strength?
52. From which country did Moses help the Israelites escape from their lives of slavery?
53. Who was the fourth person in the fiery furnace along with Daniel's friends?
54. What did Joseph's brothers do to deceive their father to cover up that they had sold Joseph into slavery?

Answers from 2/27 Bulletin

45. Psalm 23 46. Revelation 47. Paul 48. Shepherd 49. Rahab



## The Parable of the Lost Son

Homecoming means a person returning to where he spent most of his life. It means letting down complex issues and going back to the place of youth. Of course, it is human nature to move to a larger town or country to seek one's ambition. Still, letting down issues indicates accepting who we are, including our merits and demerits. It means taking ourselves as-is.

In today's gospel in Luke 15, the prodigal son changes his heart and returns to his father. Changing one's heart includes accepting oneself as-is. It is accepting the despairs and failures and approaching the Lord. This change needs courage as it requires taking our grim and painful nature. We may try to avoid the change by self-defenses like avoiding the issue or coming up with excuses. Once we accept ourselves as-is, our heart faces God as we become poor in spirit.

Through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Luke 15), the gospel writer Luke encourages us to return to God, regardless of the faults we have made. God is our father who has the mercy of a mother.

Before the change, the prodigal son's life resembles that of modern people. These days, many lose their faith and are swamped in uncontrolled desire and greed. Sensitive, impulsive, and competitive, people become more and more unhappy. But, on the other hand, we can get true happiness from faith and being with God because we learn to be content.

In the Korean essay "Happiness in the days of poor," there is a story about a poor couple. The husband tried to prepare breakfast for the wife, but there was nothing but some soy sauce. He was sorry and wrote a note on the breakfast saying, "Meal of a queen, a dish from a poor" The wife was deeply moved from the care and felt the happiness of a queen. The story shows that it is a blessing to get satisfaction even if one's life needs many.

Some of us may be like the first son in today's gospel. The first son was not spoiled and did his duties. However, the first son has stubbornness and arrogance, not forgiving others' faults. We may be like that toward others.

The story of the lost son has this moral. God is good, and he loves people without conditions. Life may sweep us away from God; However, God keeps knocking on the door to our hearts and encourages us to return.

Fr. Paul Kim





##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3/27 Sunday		3/29 Tue	3/30 Wed	3/31Thurs	4/1 Fri	4/3 Sun	
Mass Time	10am	3pm	7:30pm	10am	10am	7:30pm	10am	3pm
해설/ Narrator	송율리안나		김소화데레사	박분도	변리오바	김소화데레사	박세실리아	
독서/ Readers	신모니카 김혜진세실리아	M. Angel Michael					김분도 손데레사	Maryann Angel Asela Garcia
전례부/Altar Server	박아가다 최클라라	김마지아	박아가다	안세실리아	최클라라	김마지아	안세실리아 오미카엘라	최클라라
반주/Organist	김스콜라스티카	Juliana Cho	조율리안나	김미카엘라	김미카엘라	조율리안나	강실비아	Juliana Cho
봉헌/Offertory		Antoinette A. Cecilia Cosme						Antoinette A. Cecilia Cosme

### 사순시기 복음묵상과 묵주기도

저녁 9시 Zoom Meeting ID: 860 6709 3499 Passcode: 19713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지식(환희)	경외(빛)	군셈(고통)	의견(환희)
6	7	8	9	10	11	12
사목협의회(빛)	지혜(고통)	통달(환희)	효경(빛)	성가대(고통)	연령회(환희)	해설단(빛)
13	14	15	16	17	18	19
사목협의회(고통)	양업회(환희)	사목협의회(빛)	성체조배회(고통)	셀 기도회(환희)	성경공부(빛)	성무일도(고통)
20	21	22	23	24	25	26
사목협의회(환희)	성령기도회(빛)	주일학교(고통)	제대회(환희)	재정위원회(빛)	전례부(고통)	사목협의회(환희)
27	28	29	30	31	4/1	2
사목협의회(빛)	레지오(고통)	지식(환희)	경외(빛)	군셈(고통)	의견(환희)	지혜(빛)
3	4	5	6	7	8	9
사목협의회(고통)	통달(환희)	효경(빛)	성가대(고통)	연령회(환희)	해설단(빛)	양업회(고통)
10	11	12	13			
사목협의회(환희)	전례부(빛)	성체조배회(고통)	전신자(환희)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일정

주일 미사후 야외 '십자가의 길'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어 봅시다.

3/6(일): 경외 3/13(일): 군셈 3/20(일): 통달 3/27(일): 지식 4/3(일): 지혜 4/10(일): 의견 4/15(금): 효경

※ 담당 구역은 각 처에서 기도하실 분을 미리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소식 / Parish News

- ◆ 전례부 모임 (Altar Server Meeting)  
일시: 3/27(일) 10시 미사 후
- ◆ 구역모임 (Territory Meeting) Zoom  
지혜: 3/27(일) 오후 1시 / 장소: 강프란치스코 형제님 댁  
경외: 3/28(월) 오후 7시  
통달: 4/2(토) 신심 미사 후 장소: 양업관

◆ 사순시기 복음묵상과 묵주기도  
기간: 3/2~4/13 오후 9시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3/6, 3/13, 3/20, 3/27, 4/3, 4/10  
이 기간동안 주일미사 후  
야외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일시(Date/Time): 4/1(금/Fri) 8pm

◆ 첫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일시(Date/Time): 4/2(토/Sat) 10am

◆ 사순판공(penance and reconciliation)  
일시(Date/Time): 4/8(금/Fri) 1st: 3-5pm 2nd 7-9pm

- ◆ 성삼일, 부활 대축일 미사 시간 / Paschal Triduum, Easter
  - 주님 만찬 성 목요일(Holy Thursday): 4/14(목/Thurs) 7:30pm  
(이날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There will be no 10am mass)
  - 주님 수난 성금요일 (Good Friday): 4/15(금/Fri) 7:30pm
  -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Easter Vigil): 4/16(토/Sat) 8pm  
(이날 사순예물 봉헌이있습니다.)
  -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Easter Sunday): 4/17(일/Sun)  
Korean: 10am / English: 3pm

◆ 그룹 성경공부반 성전 앞에서 모집합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복음)  
문의: 윤심포로사(성경봉사회): 951-966-5868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2코린 5:17



Whoever is in Christ is a new creation. 2Cor 5, 17



"당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 하느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가
-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는가
-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가
- 하느님의 뜻에 자주 반항하는가
-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가
- 질투하거나 화를 잘 내는가
- 타인에게 정직하며 공평한가
-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가
-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가
- 음식이나 물건을 낭용하지 않는가
- 재물에 몰두하지 않는가
-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가
- 세속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고 있는가
- 봉사받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 친절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는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안하는  
사순시기 양심성찰

3/20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796 (104명) 3pm: \$175 (20명)
교무금 Envelope	\$2,000 김기태, 이빈희, 전홍식, 김병찬, 김원규, 이훈, 권기준, 한현매, 최태웅
교구발전기금 DDF	\$60 이훈, 김병찬
합계 Total	\$3,031



# 주보광고 / Bulletin Ad

##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 교리상식 101

### 9.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에서 신경을 바칠 때, 왜 '사도 신경'만 바치나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언제 바치나요?

사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세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상징적 용어들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 신경입니다. 사도 신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세례성사 예식 때 사용하였고,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기에 사도들의 권위를 부여받아, 2세기 무렵 오늘날과 같은 형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신경 자체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이자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세기 즈음에 교회는 신앙에 관한 수많은 이단과 이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신성까지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이에 맞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에 신성에 대한 교리들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공의회에서 결정된 신앙 조문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신경이 만들어졌고, 이 공의회를 따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 전례 안에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보다는 '사도 신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신경'이 상대적으로 더 짧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신경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치는 본당 공동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과 '사도 신경' 모두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정수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경을 모두 본존하고 신앙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